

(사)대덕구자원봉사센터 ‘박재용 이사장 취임’

**민·관 협력을 통한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
자원봉사 활성화에 전력...아파트봉사단·가족봉사단 육성·지원
자원봉사자 인정제도 확대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춘 봉사활동**

박재용 대덕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이사장은 대덕구자원봉사센터장을 역임 후 7월 1일 이사장에 취임했다.

박 이사장은 옥천에서 태어나 충남고와 충남대를 졸업하고 서울 새마을운동 중앙본부(현,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11년간 근무 후 대전으로 내려와 사업가의 길을 걸었다. 그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봉사와 인연을 맺게 됐고 봉사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관도 갖게 됐다.

사회에서 은퇴와 함께 본격적으로 대덕구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봉사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취임해 봉사자들과 함께 센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했다. 센터장으로 봉사자들과 함께 본인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기에 이번에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2년이다.

박재용 이사장을 만나 앞으로 센터 운영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사장 취임에 대한 소감은.

2023년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운영지침’에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선정하게 되어 부족하지만, 전임 이사장이신 최충규 구청장님과 이사님 및 정회원님의 동의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대덕구와 대덕구민을 위해 더 열심히



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맡겨주신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의 자리라서 막중

한 책임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맡겨주신 자리에서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체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대덕구정의 슬로건에 발맞춰 구과 구민 모두가 함께 일상이 즐거운 행복대덕을 만들고 자원봉사의 선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센터의 중점 사업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봉사단 조직 및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시도로 대덕구 내의 아파트 단지별로 봉사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주거 인구밀도가 높아 작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은 층간소음, 주차 등 주민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은 갈수록 잦아지는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파트마다 봉사단을 조직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별로 조직된 마을봉사단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끼리 만나 소통이 이뤄집니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함께하면 이웃 간 사소한 갈등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덕구자원봉사센터는 현재 마을봉사단 만들기를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장님 재임 중 특별히 추진하고 싶은 사업(계획)은?

아파트봉사단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마을봉사단을 조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는 대덕구의 각 지역의 인구분포, 주거형태, 지리적 위치 등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봉사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로 기업이 많은 곳은 사내봉사단 조직을 구성하고 주택과 빌라가 많은 곳, 학교가 많은 곳 등 각 특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조직하고 청소년 등 젊은 세대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봉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봉사단의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는 어린 시절부터 체

인가요?

먼저, 센터가 시작된 이래로 여러 봉사활동에 함께 해주신 대덕구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가 활성화되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봉사자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활동들 하나하나 모두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꼽으라면 대덕구와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참여하는 봉사자들입니다.

봉사자들은 센터가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센터와 한마

협하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상반기 4개 가족봉사단과 함께 대전전을 살리기 위한 ‘EM휴공 만들어 던지기’를 실시했습니다. 미래세대에게 지구환경보존의 중요성과 자원봉사의 즐거움을 전하고자 기획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기존의 여러 가족봉사단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아이와 함께 하는 가족단위 활동을 더 기획하여 자원봉사가 가족의 즐거운 여가 활동이 되고 가족 유대감 형성에 도움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자 인정정보상제도 확대입니다. 노력과 시간을 내어 봉사해주는 분들의 노고를 제대로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자원봉사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의 구축입니다. 수요처를 관리하는 본 센터가 구심점이 되어 적십자,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다양한 봉사단체와의 상호 협조를 통해 자원봉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원봉사활동 체계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음으로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새로운 봉사를 위한 아이디어를 주시는 기획자이자 확정된 활동에 대해 몸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저와 센터는 이런 봉사자들을 평생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는

마을신문은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대소사와 사람 사는 이야기가 풍성한 신문입니다. 이러한 신문이 우리 대덕구에 있다는 것은 큰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소식을 세세하게 듣게 된다면 마을에 더욱 애정을 갖게 되고 공동체성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훈훈한 자원봉사소식이 대덕마을신문에 많이 실릴 수 있도록 대덕구자원봉사센터도 노력하겠습니다.

대덕마을신문이 대덕구와 구민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마을기자 노희선 · 손갑철

이사장님께 봉사자들은 어떤 의미